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1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이승모 · 최상훈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5%	37번	(독서 : 인문)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4위	41%	32번	(문학 : 현대시) - 고난도 의미 추론
오답률 3위	44%	40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과 <보기>의 이론 연결 및 추론
오답률 2위	52%	23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추론
오답률 1위	58%	24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소설 : 작자 미상, ‘방한림전’ / 현대소설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문법] 12번, 13번, 15번

[독서] 사회 지문 : 채권 양도의 과정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5%) 예측] : 독서-인문 37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Killer-Point]	<p>37. <보기>는 성리학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윤희론과 업보설은 장재가 말한 대로 사람의 삶과 죽음이 '기'의 모임과 흠어짐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백성을 미망에 빠뜨린다. ○ 을: 공자와 맹자는 왕이 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 근거를 밝힘에 있어 모자람이 있었다. 주희에 이르러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가 하늘의 이치와 다르지 않음이 소상히 밝혀졌으니, 주희는 공맹에 버금가는 성인이다. ○ 병: 인간의 마음은 본래 '이'를 담고 있어 지극히 선하지만 수양을 통해 탁한 '기'를 맑게 하지 못하면 오욕(五慾)에 휘둘려 악에 치우친다. 그러므로 이황이 수양을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div> <p>① '갑'이 윤희설과 업보설을 장재의 주장에 따라 비판한 것은, 불교가 민심을 현혹한다고 믿었던 조선의 신진 사대부들의 입장과 상통하겠군.</p> <p>② '을'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와 하늘의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밝힌 주희를 높이 평가한 것은, 기존 유학에는 결여되었던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겠군.</p> <p>③ '을'이 공맹의 가르침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은, 이러한 단점 때문에 삼대 왕조 이후에는 '이'가 현실에 구현되지 못했다는 성리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겠군.</p> <p>④ '병'이 이황의 수양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인격 수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실학자들의 견해와 부합하겠군.</p> <p>⑤ '병'이 현실 문제의 해결에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황의 생각을 잘못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림파가 수양이 미흡한 탓으로 현실 정치에서 실패했다는 이황의 판단을 염두에 둔 것이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③]</p> <p>화려하게 꾸며주는 말 속에서 '갑, 을, 병'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발화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p> <p>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선지의 표현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p> <p>먼저 <보기>의 '을'이 하는 말을 정리해보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자와 맹자'는 가르침을 전했으나,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2. 그 '근거'를 밝힌 사람이 '주희'이다. 3. 따라서 '주희'는 '공자와 맹자'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p>이제 선지의 표현을 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을'이 공맹의 가르침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은 (2) 이러한 단점 때문에 삼대 왕조 이후에는 '이'가 현실에 구현되지 못했다는 성리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겠군. <p>(1)은 맞는 말이다. '을'은 공맹의 가르침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2)는 틀리다.</p>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성리학자들이 삼대 왕조 이후에 '이'가 현실에 온전히 구현된 적이 없다고 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무력을 앞세운 정치가 횡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공맹'의 가르침이 남아 있어서 후세의 성리학자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성리학자들은 삼대 왕조 이후에 '이'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한 탓을 '공맹'의 가르침 때문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후세를 위해 가르침을 남긴 '공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맹'의 가르침에 모자람이 있었다는 지적은, 지문에 제시된 성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였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 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밑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ㄴ.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ㄷ.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ㄹ.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③]

[오답률 4위(41%) 예측] : 문학-현대시 32번 문항

[고난도 의미 추론]	
[Killer-Point]	<p>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 보기 > —————</p> <p>시간이나 공간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성질을 유한성이라 한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필연적으로 죽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연이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며 영속한다는 시각에 기대어 죽음을 순환 과정의 한 단계로 본다면, 죽음은 삶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러한 인식은 죽음을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른 당연한 과정으로 수용하도록 도와준다.</p> </div> <p>① '당나귀는 죽었다'라는 진술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를 언급하는 것에서, 화자가 죽음을 삶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p> <p>② 당나귀의 '커다란 몸집'이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린다거나 '흙'이나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단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p> <p>③ '나무'와 '풀들'이 '그 이행'을 지켜보며 '바람'과 '구름'을 손짓하는 것은, 소멸하는 존재를 배웅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p> <p>④ '이 모든 절차'는, 죽은 존재가 소멸했다가 다시 생성되려는 과정을 아우르는 표현이겠군.</p> <p>⑤ 당나귀가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고 한 것은, 화자가 생명을 지닌 존재의 소멸과 생성을 숨었다 보였다 하는 숨바꼭질에 비유한 것이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③]</p> <p>3번 선지의 경우 <보기>에서 제시해주지 않은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선지 표현이 낯설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치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용이 전환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도는 가져가야 한다.</p> <p>먼저 <보기>를 기반으로 시를 보면, 2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9행의 내용은 '소멸'의 과정을 의미하고 10~18행의 내용은 '생성'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10행의 '또 그것은'을 기준으로 내용이 전환되는 것이다.</p> <p>3번 선지의 표현에 따르면 '나무'와 '풀들'이 손짓하는 행위는 '죽음', 즉 '소멸'에 대한 배웅이어야 한다. 그런데 '소멸'에 대한 내용은 9행에서 끝난다. 그리고 '나무'와 '풀들'의 손짓은 13행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때 '나무'와 '풀들'의 손짓은 '소멸'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생성'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p>
[유사한 평가원 기출]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A]	<p>높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p> <p>아아 이 아침</p>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샨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샨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정답 : ④]

[오답률 3위(약 44%) 예측] : 독서-과학 40번 문항

[지문 내용과 <보기>의 이론 연결 및 추론]

40. <보기>는 후성 유전 현상과 생물의 진화에 대한 과학자 '갑'의 설명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유전자가 형질로 발현되려면 해당 DNA 염기 서열 부위에 특정 효소가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DNA가 히스톤에 감길 때 안쪽 깊숙한 곳에 감긴 유전자는 특정 효소의 접근이 불가능해 발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히스톤의 그 부위에 아세틸기가 달라붙으면 특정 효소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 지금까지 진화의 동력은 대체로 유전자의 변이에만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유전자의 변이는 장기간에 드물게 일어나지만 후성 유전 물질의 변이는 단기간에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식습관 등을 달리하면 후성 유전 물질의 변이가 일어나고 이 변이가 반복적으로 후세에 유전되면 결국 유전자 자체에도 변이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Killer-Point]

- ① 갑은 유전학의 '중심 원리'만으로는 생물의 진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② 갑은 후성 유전 물질의 변이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형질도 후세에 유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③ 갑에 따르면, 아세틸기가 달라붙어 특정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겠군.
- ④ 갑에 따르면, 모든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형질을 보이는 것은 히스톤에 접근하는 특정 효소의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겠군.
- ⑤ 갑에 따르면, 암세포 억제 기능이 있는 물질의 유전자가 보통 사람보다 더 안쪽 깊숙한 곳에 감겨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더 높겠군.

[정답 : ④]

지문에서는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달라붙으면 그 부위의 히스톤 모양이 변하면서 주변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달라진다.'고 나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게 <보기>의 내용이다. <보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유전자 -> 형질 발현에는 '특정 효소' 접근 필요
- 2) '히스톤' 안쪽 부분에 감긴 유전자 = 특정 효소 접근 불가능
- 3) 안쪽 부분에 아세틸기 결합 = 특정 효소 접근 가능

즉 히스톤 안쪽 부분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그 부분 유전자가 발현되고, 히스톤 안쪽 부분에 아세틸기가 결합하지 않으면 그 부분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히스톤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된다.

4번 선지에서는 유전자가 동일한 쌍둥이가 다른 형질을 보이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위에서 정리했다시피 이는 히스톤에 접근하는 특정 효소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히스톤과 아세틸기가 결합하느냐 결합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지문에 있는 표현에 따르면 '히스톤의 모양'에 따라 발현되는 형질이 달라지는 것이지, 특정 효소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평가원 기출] -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

어떤 물체가 점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점탄성이란 무엇일까? 점탄성을 이해하기 위해 점성을 가진 물체와 탄성을 가진 물체의 특징을 알아보자.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용수철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수철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꿀을 평평한 판 위에 올려놓으면 꿀은 중력에 의해 서서히 흐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꿀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꿀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물체가 힘과 변형의 관계에서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즉각성'과 점성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점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물체를 점탄성체라 한다. 이러한 점탄성을 잘 보여 주는 물리적 현상으로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들 수 있다. 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고무줄에 힘을 주어 특정 길이만큼 당긴 후 이 길이를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외부에서 힘을 주면 고무줄은 즉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힘과 변형의 관계가 탄성의 특성인 '즉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늘어난 고무줄의 길이를 그대로 고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고무줄의 분자들의 배열 구조가 점차 변하며 응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점성의 특성인 '시간 지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점탄성체의 변형이 그대로 유지될 때, 응력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이 응력 완화이다.

이제는 고무줄에 추를 매달아 고무줄이 일정한 응력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고무줄은 순간적으로 일정 길이만큼 늘어난다. 이는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체와 같이 분자들의 위치가 점차 변하며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크리프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유리창 유리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점탄성체의 변형에 걸리는 시간이 물질마다 다른 것은 분자나 원자 간의 결합 및 배열된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상온(常溫)에서도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의 경우 너무 느리게 일어나므로 상온에서는 관찰이 어렵다. 온도를 높이면 물질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일론의 경우 온도를 높임에 따라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가속화되며, 금속도 고온에서는 중력 완화와 크리프를 인지할 수 있다. 모든 물체는 본질적으로는 점탄성체이며 물체의 점탄성 현상이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가) 나일론 재질의 기타 줄을 길이가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하여 음을 맞추고 바로 풀어 보니 원래의 길이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기타 줄을 길이가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하여 음을 맞춘 후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 매여 있는 기타 줄의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팽팽한 정도가 감소하여 음이 맞지 않았다.
- (나) 무거운 책을 선반에 올려놓으니 선반이 즉각적으로 아래로 휘어졌다. 이 상태에서 선반이 서서히 휘어져 몇 달이 지난 후 살펴보니 선반이 휘어진 정도가 처음보다 더 심해져 있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선반이 서서히 휘는 속력은 따뜻한 여름과 추운 겨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① (가)에서 기타 줄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 것은 기타 줄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군.
- ② (가)에서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달라진 것은 기타 줄에 응력 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군.
- ③ (가)에서 나일론 재질 대신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한다면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빨리 감소하겠군.
- ④ (나)에서 선반이 책 무게 때문에 서서히 변형된 것은 선반이 크리프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여름과 겨울에 선반의 휘어지는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선반이 겨울보다 여름에 휘어지는 속력이 더 크기 때문이군.

[정답 : ③]

[오답률 2위(약 52%) 예측] : 독서-사회 23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추론]	
[Killer-Point]	<p>2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은 채무 이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양수인의 통지가 허위일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다. ④ ㉡은 채무자로 하여금 양수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유인하는 요건이다. ⑤ ㉠은 지명채권의 유통성을 높이는 역할을, ㉡은 지명채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③]</p> <p>꽤 어려운 추론이다.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는 3번 선지의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 3번 선지를 보고 아주 뜬금없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수인의 통지가 허위인 경우'는 이 문제에서 처음 본 경우이니,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p> <p>생각은 '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일까?'로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양수인의 통지가 가능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수인의 말만 듣고 채무 양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p> <p>그렇게 되면 양수인이 허위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만 해도 채무자로서는 채무 이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p> <p>이때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양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양수인의 통지가 허위인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p>

[오답률 1위(약 58%) 예측] : 독서-사회 24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Killer-Point]	<p>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 < 보 기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A는 모년(某年) 4월 5일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같은 해 6월 5일에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B는 빚을 갚는 대신 자신의 C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C의 변제기일인 같은 해 6월 15일에 A가 C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C는 A에 대해서는 B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B가 D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것을 알고 같은 해 6월 10일자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승낙 의사를 전했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p> <p>(단, 통지나 승낙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p> </div> <p>① A는 C가 아니라 B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겠군. ② A가 아니라 D가 C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으로 인정되겠군. ③ B가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어도 C는 A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군. ④ B가 자신이 A에게 양도한 사실도 C에게 확정일자를 갖추어 통지했다면 확정일자의 선후로 적법한 양수인이 가려지겠군.</p>

⑤ B가 자신이 D에게 양도한 사실도 C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C도 이 사실에 대한 승낙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면, C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대는 여전히 B이겠군.

[정답 : ④]

<보기>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일단 <보기>에는 'A, B, C, D'라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관계를 잡는 게 핵심이다. <보기>의 타임 테이블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5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줌
6/5	1) A가 B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 2) B는 A에게 1,000만원을 갚는 대신 C에 대한 1,000만원짜리 채권을 양도
6/10	C는 B가 D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을 알고 B→D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 의사 전달
6/15	1) A가 C에게 1,000만원(B에게 양도받은 채권) 달라고 요구 2) C는 B에게 통지 받은 적이 없다며 거절 + B의 채권은 A가 아니라 D에게 양도된 것이라 주장

여기서 포인트는 B가 이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즉 B의 채권에 대한 양수인은 A와 D 두 명이 된다.

이제 4번 선지를 보자.

4번 선지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보기>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한다.

'B가 C에게 B→A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양수인이 복수이고 복수의 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양도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때에도 통지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고, 승낙은 확정일자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된다.

즉 '통지'와 '승낙'는 날짜의 선후 판단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B가 자신이 A에게 양도한 사실도 C에게 확정일자를 갖추어 통지했다면, 이 통지가 도달한 날짜와 C의 승낙이 이루어진 날짜(=확정일자)를 비교하여 이 날짜가 더 앞선 양수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된다. 확정일자의 선후로 적법한 양수인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평가원 기출]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

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갑과 을이 양도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금반지는 을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는 점유개정이라 볼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는 4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병이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산문 [26~29번 지문] [작자 미상, ‘방한림전’]

“이제 고대와 평생을 함께 지낼사라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알지 않겠나이다. 다만 고대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수줍음이 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을 물러보겠소?”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259p)

[작품 ‘한눈’에 보기]

[전체 줄거리]

방관주의 부친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유생으로 오랜 기간 후사를 기다린 끝에 노년에 딸인 방관주를 얻었다. 원래 방관주의 집안은 입금에 대한 절개로 유명한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노년의 부모만이 있는 쇠락한 가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방관주는 여자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장**을 하고 지냈다. 8세 때 부모를 여읜 후에도 **남자로 행세하다가 12세 때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한편 영혜빙은 남편의 구속을 받는 것이 싫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방관주가 여자임을 눈치 채고 평생지기가 되어 **부부로 행세하기로 방관주와 약속한다.** 이후 방관주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게 되고, 우연한 기회에 **낙성을 얻어 아들로 삼는다.** 방관주는 승상의 지위에 오르고 낙성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어사가 된다.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도사가 찾아와 방관주의 관상을 보고, 마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사라진다. 이후 방관주가 병을 얻고, 죽음에 앞서 황제를 기망한 죄를 사하여 주기를 바라는 상소를 올리고 죽자 영혜빙도 뒤따라 죽는다.

[가볍게 보는 ‘작품 Point’]

① 남장

가. 작품의 주인공인 **방관주**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남자로 행세하며 나라에 공을 세워 병부상서로 봉해지는 등 입신양명한다.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서사는 여성영웅소설의 공통적 서사구조라** 할 수 있다.

나. 주의할 점은 **여성성을 유지한 채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 했던 영혜빙과는 다르게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하려** 하고 성공한 남성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제 부인은 여자의 도리를 알 때에도 어찌 가문의 자(字)를 함부로 부른다? 내가 오려니 문주(영혜빙의 자(字))라 알았는데,

라던 부인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있나?” - 수능완성 수록 뉘앙스 중에서

② 동성 결혼

분명 소재 자체는 파격적이다. 하지만 방관주와 영혜빙의 동성결혼은 둘의 성 정체성만 동일할 뿐이다. 방관주는 남성성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영혜빙은 부분적으로는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뒤바꾸려 하거나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둘의 초점은 ‘동성결혼’에 있다가보다는 ‘방씨 가문의 번영과 영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자녀입양

여성 아이가 아닌 남자 아이라는 점, 그리고 낙성이 후에 입신양명하여 출세를 한다는 것으로 미뤄보아 낙성의 출현은 이 역시 ②와 같은 맥락으로 위기에 처한 방관주의 가문을 구하는 데에 쓰인 화소로 볼 수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성을 파악하라.”

‘한수 모의고사’ <보기>	
	<p>「방한림전」에는 여성인 주인공과 여성 인물 간의 결연이라는 독특한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다. 남장을 한 주인공은 혼인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는 탄로라는 것을 염려하는 한편,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여성 인물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 불만을 지닌 여성 인물은 주인공의 정체를 간파하고 주인공과 혼인한다. 남성의 삶을 지향하는 주인공과 남성에게 구속받는 것을 지양하는 여성 인물은 부부가 됨으로써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게 된다.</p>
<p><보기>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장을 했지만 그로 인한 행동에 ‘양심의 가책’ 및 염려 등 ‘다양한 내면’을 드러내는 주인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small;">[EBS 확인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첩이 두 분의 삶을 누설하고 싶었으나 상공께서 하도 강요하시기에 발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비록 나를 젖 먹여 품속에서 기른 은혜가 있을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p> </div> <p>⇒ 유모의 말에 두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면서 ‘비록 나를 젖 먹여 품속에서 기른 은혜가 있을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라고 협박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남성 중심 및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 하는 두 여성의 다른 태도 <p>⇒ [방관주 : 남성의 삶을 ‘지향’] VS [영혜빙 : 구속받는 것을 ‘지양’]</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를 바탕으로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시련장에서는 동아들이 될 수 있다.”

혜빙은 특히 세상 부부들의 영욕 거부하기를 마치 초와 월나라가 서로 원수로 여긴 것처럼 하여 수시로 말하기를,

“여자는 죄인이라 이미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의 규제를 받아야만 하니, 남자가 되지 못할진댄 인륜을 끊는 것이 옳으리라.”

하며 형제들이 부부의 연을 맺어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웃었다. 다른 형제는 이런 혜빙 소저가 여자답지 않게 활달하다고 조롱했으며, 혜빙의 아버지인 서평후 영공과 그의 아내 또한 그녀의 생각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가운데 영공이 한림학사인 방관주를 매우 사랑하여 지극정성으로 구혼하니, 한림이 매우 괴로워하다가 생각했다.

‘이미 죽을 때까지 남자로 행세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나, 처자를 두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름다운 숙녀를 얻어 평생 동안 지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나 차마 남을 속여 인륜을 해치기 어렵고, 또한 어리석고 못난 여자를 만나 내 본색이 누설될까 두렵구나.’

(중략)

혼례를 올린 날 밤 한림이 침실에 이르니, 소저가 이미 그가 여자인 줄 알고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낫추고 옆으로 살짝 비켜 앉으며 말했다.

“첩이 상공께 아릴 말씀이 있으니, 혹 당돌할지라도 용서하소서.”

한림이 소저가 이미 자기의 본색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탄식하며 말했다.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뇨? 한번 듣고자 하나이다.”

소저가 웃기를 여미면서 대답했다.

“소첩이 만일 한림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 당돌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나이까? 그욕이 헤아려 보니, 한림께

서는 해와 달을 속이고 세상을 기망하여 여자이면서도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남자 옷을 차려입었소.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사정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첩이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아니하리이다.”

한림은 소저의 이처럼 맑고 분명한 결단에 항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고 참혹해, 옥처럼 고운 얼굴에 구슬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능히 기운을 수습하지 못했다. 한동안 이렇게 구슬피 운 뒤 팔을 들어 사례하며 말했다.

“저의 근본은 소저가 의심한 것과 같소이다. 하늘에 무거운 죄를 지은 탓에 **여덟 살에 양친을 모두 여의고 제 한 몸만 외로이 남았는데, 궁벽한 시골 고향에는 일가친척 등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었소.** 살아갈 계교가 전혀 없어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 이미 열 살이 되었는데도 행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냈소.

㉮ ‘홍계월전’의 경우 부친이 있듯 여성영웅소설 거의 모든 작품에서 가문에 남자는 한 명 이상 존재한다. 여타 작품들이 남장을 풀고 여성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반해 **부모와 친족이 남아있지 않은 방관주는, 여성의 삶으로 돌아오면 가문을 이끌 주체가 없어지기에,** 마지막까지 성 정체성을 숨긴다. 즉, **일시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잠정적 대리자’ 따위가 아닌 것이다.**

나이가 어린 탓에 남자 행색을 계속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 그대가 내 본색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감히 다시는 속이지 못하리다. 나는 이미 길을 잘못 들었고, 곡경지심(曲徑之心)*이 있어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존경하는 영공께서 강하게 권유하시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소저의 일생과 인륜을 희롱하게 된 것이오. 소저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소만, 이제 와서 내 본색을 누설할 수는 없으니, 그대가 침묵하기를 바랄 뿐이오.”

영 소저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를 처음 볼 때 이미 분명히 알아보았던 터이니, **이제 그대와 평생을 함께 지낼지라도 아내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겠나이다.**

㉮ 확실하게 알고 가자. 영혜빙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내로서의 도리를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즉 그녀는 **‘당대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삶’**을 거부한 것이지, **‘여성의 삶’**을 거부한 게 아닌 것이다.

[EBS 확인하기]

“지금 부인이 뭘에 걸고 있는 것이 모두 내게서 나온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눠다 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만큼 두들겨서 부인의 욕심이 지나치게 심하리니**” / 부인이 가만히 웃으면서 말했다. /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어찌 유독 그대에게만 쓸모가 있겠소?...**”

⇒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어찌 유독 그대에게만 쓸모가 있겠소?’라는 영혜빙의 말에서 자신의 삶과 방관주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영혜빙이 방관주의 남성으로서의 삶과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대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수영이 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들 몰라보겠소? 그 시절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려 하시나이까?”

한림이 처량하게 탄식하며 말했다.

“모든 일이 되어 가는 대로 두고 볼 생각이기에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나, 소저의 일생을 생각하면 무안하기 그지없소. 이미 나와 지기가 되어 일생을 함께 마치고자 한다면 우리 두 사람이 형제의 의를 맺어 서로의 호칭을 어지럽게 하지 맙시다.”

영 소저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래서는 아니 되나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대의 본색이 자연히 드러나 우리 부모님께서 알게 되어 좋

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만 우리가 부부의 예의를 차리면 될 뿐인데, 어찌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림이 기꺼이 허락한 뒤 팔뚝 위의 주표(朱標)*를 소저에게 보이니, 소저가 쌀쌀맞게 웃으며 말했다.
 “주위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한림이 말했다.
 “제가 스스로 깊이 감추었는데 누가 능히 알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또한 지기를 얻어 서로의 뜻을 잃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기뻐했다.

- 작자 미상, 「방한림전」 -

* 곡경지심: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행동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 주표: 여자의 팔에 피꼬리 피로 문신한 자국으로, 처녀의 징표.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여자와 여자의 혼인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 방관주와 영혜빙은 당시에 요구받았던 일반적인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선택한다. 이 작품은 보편적인 여성 영웅 소설과 달리 여성 영웅이 죽기 직전까지 남자로 위장한다는 점, 남자로 위장하기 위해 동성 간의 결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이야기이다.
주제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
‘수능특강’ <보기>	
방관주와 영혜빙은 당대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거부하려 했다는 데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그들이 관습적인 여성상을 거부하고 추구한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즉 방관주가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하고 성공한 남성의 삶을 추구했던 반면, 영혜빙은 겉으로는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는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보기> point	• 남성의 권위적 삶을 모방한 방관주와 남성과 대등한 지위의 여성상을 추구한 영혜빙
발문	<보기>를 참고하여 ‘방관주’와 ‘영혜빙’의 현실 대응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④ 낙성이 물러난 후 영혜빙이 보인 반응에 방관주가 ‘투정’이라 표현하는 장면에서, 영혜빙이 스스로의 역할을 가정 내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방관주가 불만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영혜빙의 반응에 대해 ‘투정’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에서 방관주가 영혜빙의 역할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불 지문] "비교하기, <삽장>, 평가원 - '2016학년도 6월 「홍계월전」"

여공이 물러 나오자 위공과 정렬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 평국과 보국이 또한 옆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렬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 부인과 춘량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 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 일을 즐기니라.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칸을 불일성지(不日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 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 의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사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 보리라."

하시고 어의(御醫)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천자에게 사실을 아뢰더라.

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A] "무슨 연고가 있더냐?"

어의 땅에 옆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

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하시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이때 평국이 병세 점점 나옴에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 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고,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 부모 앞에 뵈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횡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중략 줄거리] 이후 홍계월 평국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영 및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뜯어 열어보시니 하였으되,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복지 십여 성을 항복

[B]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옆드려 바라옵

「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올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들여
 전장에 보내리오.”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오나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 어찌 혐의하오리오.”
 하거늘,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엎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
 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초 양국 이반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시되 평국이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항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
 옴소서.” 하더라.

- 작자미상, 「흥계월전」-

* 불일성지: 며칠 안 되어 일이 이루어짐.
 *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나 문서.

문제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A]와 [B]는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A]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A]에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B]에는 문제 해결을 유보해야 할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해설	② [A]에서 ‘어의’는 평국의 맥이 여자의 맥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천자’는 평국의 얼굴이 곱고 체격이 작아 여자처럼 보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평국이 여성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에서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십여 성을 항복 받고 장안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어의’이며, [B]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남관장’이다. 정황을 전달받는 천자가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A]에는 ‘천자’가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고 있으나, [B]에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에서는 ‘어의’가 ‘천자’에게 평국이 여자라는 것을 보고하고 ‘천자’는 이를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장면만 묘사되어 있고, [B]에서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킨 순간부터 순차

	<p>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어, [A]와 [B] 모두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p> <p>⑤ [A]는 '천자'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B]는 반란군이 '장안을 범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아야 하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p>
<p>문제 2</p>	<p>㉠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 홍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p> <p>② ㉡: 홍계월이 병이 나자 집안 사람들이 많이 놀라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p> <p>③ ㉢: 홍계월이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p> <p>④ ㉣: 천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홍계월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p> <p>⑤ ㉤: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p>
<p>정답 해설</p>	<p>⑤ ㉤은 홍계월이 혼인한 이후 규중에 거하였으므로 '천자'가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그리웠다는 말이다. '규중에 처'한다는 것은 홍계월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므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규중에서 홍계월은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홍계월이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p>
<p>오답 풀이</p>	<p>① '치하'는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을 표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은 평국과 보국이 여공에게 엎드려 절하며 먼 길을 와 준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p> <p>② '경동'은 '매우 놀라 움직인다'는 말이므로 ㉡은 홍계월이 아픈 사실에 집안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밤낮으로 치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p> <p>③ '느낀다'는 말은 '서럽거나 감격에 겨워 운다'는 말이고, '종횡한다'는 '거침없이 마구 오간다'는 말이므로 ㉢은 부모 앞에서 서러움에 겨워 눈물을 터트리는 홍계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p> <p>④ ㉣은 지금은 혼인하여 규중에 거하며 여성으로 살고 있는 홍계월을 다시 불러내어 전쟁터에 내보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는 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p>
<p>문제 3</p>	<p><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홍계월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 위기- 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낸다.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p>
<p>문제 선지</p>	<p>①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계월을 적극 추천하는 것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할 수 있군.</p> <p>② 홍계월이 정체가 탄로나면 나라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홍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2차 위기의 빌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④ 여공이 어린 홍계월을 구하여 입신양명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보전하라는 명을 받은 것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
<p>정답 해설</p>	<p>③ '퇴석'은 이 작품을 지은 김인겸의 호이다. 제시문에서는 '전승산'이 화자의 글 솜씨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듣기만 하던 '퇴석 선생'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B]의 '귀한 별호 퇴석'은 화자인 '나'를 지칭하는 것이고,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이다. 즉 '귀한 별호 퇴석'과 '소국의 천한 선비'는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승산'을 각각 지칭하는 말이다.</p>
<p>오답 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천자가 남관장의 장계를 보고 크게 곤란하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는 자리에서 우승상 명연태가 '좌승상 평국이 방비하올 것'이라며 홍계월을 추천하고, 다른 신하들도 평국의 '이름이 조야에 있'다며 이에 적극 찬성하는 장면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② 평국이 어의가 다녀간 후 '본색이 탄로날' 것을 짐작하고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도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위공과 정렬 부인이 여공에게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라고 말한 부분에서 여공이 어린 시절 1차 위기에 처한 홍계월을 구하여 도와준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⑤ 혼인 이후 여성으로서 살면서 남편과 갈등을 겪으면서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는 명을 받는 부분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산문 [43~45번 지문]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미안해? 미안으로 통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굶주림이라고 뒤구석으로……. 반성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아니면 분명하게 맞서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p234)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점으로 가볍게.”

[전체 줄거리]

나른한 오후 이발소에 한 청년이 들어선다. 청년은 강압적인 목소리로 다짜고짜 빨리 되느냐고 묻고, 이발소 분위기는 일시에 긴장감으로 가득해진다. 병역 기피자인 박 씨를 비롯한 손님들은 다들 겁을 먹고 눈길을 피한다. 청년은 이발소 주인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겁을 준다. 동료인 듯한 청년이 들어오자 두 명의 청년은 빨갱이, 간첩, 베트남 등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은 이발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발소를 도망치듯 나간다. 마침 들어온 교통순경 또한 망신을 당하고 나간 후, 이발소 안은 잠시 정적에 빠진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사복 차림의 경찰을 데려와 두 사내는 불심 검문을 당하지만,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이 없어 연행되었다가 곧 석방이 된다.

[가볍게 보는 '작품 Point']

① 배경

가.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1960년대 중반의 남한 사회를 배경으로 당시의 남한 정부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1960년대 중반은 군사정권이 자리잡고 있던 시기로, **작품은 남북의 분단 체제를 정권 유지 차원에서 활용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나.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으며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냉전이념인 반공주의(반(反) 공산당 주의)를 시행한다. 북한이라는 적을 앞에 두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지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안보체제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 간의 감시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침 네 시 뉴스가 올라 나왔다. 자유 센터 구세비서 총격 사건 뉴스였다. 수도 서울에 무장 리한 출현 라면 라면 심했다. 이 발소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두 청년 쪽을 바라보았다.’ - 수능완성 수록 범본 중에서

위 인용 내용처럼 당시 군부는 언제라도 전쟁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의식을 국민 모두에게 심어준 것이다.

② 체제에 순응하는 소시민

이발소는 소시민들이 일상을 향유하는 평온하면서 여유로운 휴식공간이다. 이 안온한 공간에 낯선 청년들 들이닥치고 이들이 심어주는 공포감은 작품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당시 실제로 정보요원들은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소시민들의 일상적인 공간을 감시했는데, 이렇듯 **‘자유가 부재하는 사회’에서 소시민들은 점차 합리적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공포감과 함께 체제에 순응**하기 시작했다.

‘그 청년의 말은 라면 천천 만번 지양한 말이였다. 요즘 서울에 모두 이런 있을 때까 아닌 것이였다. 정신을 차리고 배려해봐라 있어야 할 것이였다. 휴식권을 사기에 두 배럴병과 마주 대질하고 있고, 곳곳에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판에 도대체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때까 아닐 것이였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범'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까장색 바지 차림의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울이 굵은 까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니 두 개를 해 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써늘하게 생겼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겨지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인(爲人)*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 가게 마련이다.** 끝이 **뽀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다.**

[EBS 확인하기]

'까무잡잡하다', '금니' 등으로 인물의 외양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으면서 구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날카로우면서도 결점없어 보이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헤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 씨는 대번에 꺼칠한 얼굴이 되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 손님 같지는 않다.

"글쎄, 앉으십쇼. 빨리 해 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되어? 몇 분에 될 수 있소?"

"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

"뭐? 이 양반? 언더 대구 반말이야? 말조심해."

[EBS 확인하기]

병역 기피자인 박 씨는 헤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른 성격의 인물이다. 박 씨는 예사 손님 같지 않은 청년의 태도에 얼굴이 꺼칠해지면서 겁을 먹는다. 그래서 "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라고 말하며 청년의 날 선 태도를 누그러뜨려 보려 하지만 청년은 이를 트집 잡아 호통을 친다. 이를 통해 볼 때, **박 씨는 일상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횡포에 겁먹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굴복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박 씨가 청년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보려는 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앉았던 손님 두명이 거울 속에서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에 부딪힐 듯하자 급하게 외면을 하였다. 세발대의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 씨와 김 씨도 구석 쪽 빈 이발 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가 말고 몸체만을 엉거주춤히 돌렸다.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그 눈길이 주인에게 가 멎었다. 주인도 여전히 양말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마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뭐요?"

"주인이오."

"주인이면 주인이지, 그 앉아 있는 꼴이 뭐요? 도대체에 이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때가 어느 땐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술 냄새가 약간 났으나 옹기는 한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도 후닥닥 일어나 섰다.

보기 흉하게 몸체만 돌리고 앉았던 민 씨와 김 씨도 청년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화닥닥 일어서고, 세발대의 두 소년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기운 오후의 느슨느슨한 분위기에 잠겨 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써늘해졌다. 펄퍼짐하게 모로 누워 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삐죽삐죽** 일어서진 듯하고 금빛, 은빛 금속 기구들이 사방에서 **번쩍번쩍**하였다. 맹렬하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EBS 확인하기】

- ① 늦은 오후 한 이발소에 들어온 청년의 등장으로 이발소 안의 분위기는 나른한 분위기에서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대화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기운 오후의 느슨느슨한 분위기에 잠겨 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써늘해졌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은 등장과 함께 호통과 감시하는 듯한 눈길로 이발소 안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배하려 들고 있다.

주인이 나서면서 허리를 굽신하며 공손히 말하였다.

“여하간에 앉으십시오. 급하게 해 드릴 테니까.”

“앉는 건 좋은데에.”

하고 비로소 청년은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낯색으로 마지못한 듯이 주인이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그 옆자리에는 바로 박 씨가 맡은 예순 가까운 관리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서 청년과 눈이 부딪치자 관리는 슬그머니 눈길을 돌렸다. 이 관리는 사흘거리로 꼭 요 시각이면 나타나는 단골손님이었다. 왜정 때 군청에도 있었고 M시 부청에도 있었고 도청에까지 올라갔다가 얼마 안 되어 해방을 맞았노라고 해방이 된 것이 무척 섭섭한 듯이 언젠가 말하는 것을 박 씨는 들은 일이 있다. 그렇다고 현재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직접 들은 일이 없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관리인 것은 틀림없었다.

(중략)

비로소 청년은 조금 가라앉아졌다. 이발 의자에 처억 기대어 두 다리를 중도에서 꼬아 한쪽 발을 경중 뜨게 하고 앉았다.

주인은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난 영 귀찮은 것을 건너다보듯이 청년의 뒷모습을 흘깃 보며 다시 소파에 가서 걸터앉았다. 순간 청년이 다시 핵 돌아앉았다.

“여보, 주인!”

주인이 다시 화닥닥 놀라며 일어섰다.

“당신, 이제 그 눈길이 뭐요?”

“뭐 말입니까?”

“뭐어 마알입니까?! 당신, 이제 날 어떻게 보았지!”

“미안합니다.”

주인이 더욱 겁이 난 얼굴로 처참하게 창백해지며 대답했다.

“미안해? 미안으로 통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굽신굽신하고 뒷구석으론..... 반성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아니면 분명하게 맞서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미안으루 통해? 안 통해, 우리에겐.”

안 통하면 어쩐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대로, 주인은 또 덮어놓고 우그러든 얼굴을 하였다.

어느새 이러한 사이에 이 이발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써어늘하게 겁먹은 얼굴로 전염되어 갔다. 모든 것은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손님들도 간이 콩알만 해지고 세발대 소년들이나 면도하는 소녀들까지도 말조심하고 걸음걸이 조심하고 쉬쉬하는 표정이 되었다. 어떤 손님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하여튼 예사 손님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

* 하관이 빠르고: 턱이 뾰족하고.

* 위인: 사람의 뒹뒹이.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1966년 「창작과 비평」 창간호에 실린 소설로, 5·16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 주는 작품이다. 두 청년의 외양에서 다른 사람들이 권력의 냄새를 맡고 자진해서 그에 굴복하는 양상 을 담담하면서도 예리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요소가 겉껍질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는 설정이 주목을 끈다.
주제	서민들의 일상에 투영된 권력의 부조리한 양상
'수능특강' <보기>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당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질곡의 한 단면을 꼬집어 보여 준 희극적인 작품으로, 폭력을 앞세우며 공포 분위기를 양산하던 당대의 사회·정치적 모순을 비꼬고 있다. 작가는 5·16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권력의 실체와 성격, 그러한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대부분의 소시민의 태도를 '이발소'라는 일상의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보기> point	• 공포 분위기를 앞세우던 당대의 정부 와 그러한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소시민의 태도 를 고발
발문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p>③ 청년에게 반말을 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박 씨를 통해 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소시민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꼬집고 있군.</p> <p>⇒ 병역 기피자인 박 씨는 험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른 성격의 인물이다. 박 씨는 예사 손님 같지 않은 청년의 태도에 얼굴이 꺼칠해지면서 겁을 먹는다. 그래서 "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라고 말하며 청년의 날 선 태도를 누그러뜨려 보려 하지만 청년은 이를 트집 잡아 호통을 친다. 이를 통해 볼 때, 박 씨는 일상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횡포에 겁먹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굴복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박 씨가 청년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보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p>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역압과 순응>, 평가원 - '2010학년도 이형준, 「잔인한 도시」"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 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 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입니다.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호자 꿈에 행복하시지요.

①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얄은 소갈머리가 가없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할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앓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녀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녀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없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더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 대고 있는 빛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 숨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에게 또 한 가지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깃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⑥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③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 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빛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 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 대고 있었다. 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콩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가리며 입에 문 콩초에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어둠 속 어느 방향으로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 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 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쌔게 꺼 없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켜올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사내는 녀석의 @분별없는 행동이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놀란 녀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가막소 : 교도소

문제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정답 해설	③ 사내는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깃불빛에 의해 다시 잡혀 가는 새들을 보며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다. 따라서 ③ '사내의 추리 과정을 통해 새가 다시 잡혀오는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두 장면(새 가게를 떠나지 못하는 사내 / 새들이 전깃불빛에 의해 잡혀가는 광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젊은이의 비웃음에 대해 사내는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이 형성되지 않는다. ②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회상하는 부분이 잠시 나오지만, 이것을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젊은이의 일방적인 대사와 사내의 내면 심리만 제시되었을 뿐, 대화는 나오지 않는다. 인물의 내면은 서술자의 직접 제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이 활용되지도 않았고,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이 글의 핵심은 새들이 숲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탐색이다.
문제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해설	<p>③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없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를 통해 새를 사 주지 않는 사내를 비롯한 젊은이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p>
오답 풀이	<p>② 후반부에서 전깃불빛의 정체를 알게 된 사내가 가질 수 있는 태도라 볼 수도 있지만, 전반부에서 사내는 아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p>
문제 3	<p><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p>
<보기>	<p>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p>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정답 해설	<p>④ <보기>를 통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새 가게가 있는 공원 숲'으로,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잡혀 오는 새'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새들의 모습을 통해 억압당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사내는 교도소 수감 경험이 있는 인물로 불빛에 반사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에 안심을 한다. ④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이유는 불빛이 숲들을 비추는 이유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없다.</p>
오답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놓아준 새를 '전깃불빛'으로 다시 잡아들이는 모습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추리할 수 있다. ②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조롱 속으로 잡혀 돌아오는 '새'들의 모습은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때 새는 억압적인 수감 경험이 있는 '사내'와도 동일시된다. ③ 사냥꾼에 쫓기는 밤새들의 모습을 통해 '공원 숲'이 부정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을 마치 총을 맞듯이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새들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문제 4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문제 선지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해설	③ '그런 사연'이란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이것은 어느 날 밤 일어난 사건을 통해 추적되는데, '㉠ 숲속의 불빛'으로 '㉡ 밤새 사냥'하는 '㉠ 이상스런 일'이 새들의 '㉥ 분별없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의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란 사내 자신이 과거의 수감 경험 때문에 불빛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새들의 사연과는 관련이 없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 음운 개수 변화 없음.(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 음운 개수 한 개 줄음.(-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 음운 개수 한 개 늘음.(+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 음운 개수 한 개 줄음.(-1)

1. 교체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ㄲ, ㅋ	ㄱ	국[국], 밖[박], 부엌[부억]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ㅍ, ㅍ, ㅈ, ㅊ, ㅊ, ㅎ	ㄷ	낱, 낱, 낫, 낫, 낫, 낫, 낱 → [낱]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ㅃ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2)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ㅁ 앞	[ㅇ]	국물[궁물], 낫는다[낙는다→낭는다], 부엌문[부억문→부영문]
ㄷ	ㄴ, ㅁ 앞	[ㄴ]	달는[단는], 걸모양[걸모양→건모양], 쫓는[쫓는→쫓는]
ㅂ	ㄴ, ㅁ 앞	[ㅁ]	밥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2. 탈락

(1)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ㄱ, ㅍ’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ㄲ, ㅃ, ㄴ, ㄷ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ㄹ, ㅂ, ㄱ, ㅁ]	넋 → [녁], 여덟 → [여덨], 값 → [갑], 닭 → [닥], 삶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ㄴ, ㄹ, ㄹ, ㅂ, ㅂ, ㅁ, ㅁ	자음 앞	[ㄴ, ㄴ, ㄹ, ㄹ, ㅂ, ㅂ, ㅁ, ㅁ]	앉고 → [안꼬], 많네 → [만:네], 할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ㄴ, ㄹ’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ㄴ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ㅃ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ㅃ → [ㅂ]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ㅃ’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와,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ㅃ’은 ‘ㅂ’이 남는다.

3. 축약

(1)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ㅈ]으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ㅈ]	예) 놓고 → [노코], 앓던 → [안텐], 실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ㅈ]	예) 낙하산 → [낙카산], 마형 → [마텟], 값 흥경 → [가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첨가

(1)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벌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ㅣ’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	----------------------------------

[선택지 해설]

12. ㉔

홀이불	홀이불 → 홀이불 → 혼니불 → 혼니불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첨가 비음화
끓고	끓고 → 끌코 거센소리 되기
읽기	읽기 → 읽끼 → 일끼 된소리되기 자음군단순화
값도	값도 → 갑도 → 갑또 자음군단순화 된소리되기

정답해설 답은 ㉔야. 먼저 ㄱ을 살펴보자. ㄱ의 ‘홀이불’은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홀이불’이 되고,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 ‘홀니불’이 돼. 그 후 ‘ㄷ’과 ‘ㄴ’이 만나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즉, 총 세 번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며 그 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첨가’는 중간 층위에 해당해. 정리하면 ‘홀이불[혼니불]’에는 ‘홀이불/혼니불’이라는 두 가지 중간 층위가 설정되면서 음운의 변동이 진행되는 거야. 다음으로 ㄷ을 살펴보자. ㄷ의 ‘읽기’는 우선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읽끼’가 돼. 그 후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일끼]가 돼. 즉 ‘읽기[일끼]’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읽끼’라는 형태가 된 중간 층위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생겨. ‘읽기’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면 ‘일기’가 돼. 그리고 그 후 된소리되기는 일어날 수가 없어. 된소리되기는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야. 하지만 ‘일기’의 경우 울림소리 ‘ㄹ’ 뒤에서 안울림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뀔 수가 없어. 즉 ‘읽기’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면 된소리되기 환경이 상정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읽기[일끼]’는 음운의 변동 순서를 바꾸면 표준 발음을 도출해 낼 수 없어.

[오답풀이]

ㄴ을 살펴보자. ‘끓고’는 ‘ㅎ’과 ‘ㄱ’이 만나 바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끌코]가 돼. 즉 단 한 번의 음운 변동만 일어나서 중간 층위가 존재하지 않아. ㄹ을 살펴보자. ㄹ의 ‘값도’는 우선 탈락인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서 ‘갑도’가 된 후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갑또]가 돼. 즉 ‘값도[갑또]’는 ‘갑도’라는 하나의 중간 층위가 설정되는 거야. 다음으로 ㄷ의 ‘읽기’는 우선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읽끼’가 돼. 그 후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일끼]가 돼. 즉 ‘읽기[일끼]’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읽끼’라는 형태가 된 하나의 중간 층위가 존재하는 거야. 정리하면 ‘읽기[일끼]’와 ‘값도[갑또]’의 중간 층위의 개수는 모두 1개로 같아.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의 구성	예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함	주어 + 서술어 (자동사)	꽃이 피었다.
	주어 + 서술어 (형용사)	그녀는 예쁘다.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외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어를 필요로 함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타동사)	소년이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주어 + 보어 + 서술어 (되다/아니다)	은아는 교사가 되었다.
	주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동건이는 우성이와 닮았다.
세 자리 서술어 : 주어와 목적어 외에 부사어를 필요로 함	주어 + 필수적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수여동사
	주어 + 목적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철수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본용언 + 보조용언
		아버지는 영수를 사위로 삼았다.

[안긴 문장]

(1) 서술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시가 없음.)

-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
- 서울은 인구가 많다.

(2)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예) <u>학교에 가는</u> 철수를 보았다. →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u>철수가 쓴</u> 글을 읽었다. →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u>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u> 바위가 있다. →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예) 나는 <u>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u>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선택지 해설]

13.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먼저 ‘영지가 장난감 자동차를 직접 만들었다.’에서 ‘만들다’는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야. 이때 ‘만들다’는 ‘영지가’라는 주어와 ‘장난감 자동차를’이라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야. 반면, ‘다희가 불품없는 나무토막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에서 ‘만들다’는 ‘무엇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야. 이때 ‘만들다’는 ‘다희가’라는 주어, ‘나무토막을’이라는 목적어, ‘예술 작품으로’라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자리 서술어야. 두 문장에 쓰인 ‘만들다’는 국어 사전에 하나로 등재되어 있는 동일한 ‘동사’이면서 다른 서술어의 자릿수를 가지는 동사들이야.

[오답풀이]

㉕을 살펴보자. 먼저 ‘시간이 참 빠르다’에서 ‘빠르다’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기간이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야. 이때 ‘빠르다’는 ‘시간이’라는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야. 다음으로 ‘수진이는 달리기가 빠르다.’에서 ‘빠르다’는 ‘어

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주어인 '달리기가'만 요구하는 1자리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어. '수진이는 달리가 빠르다'라는 문장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야. '빠르다'는 안긴 문장의 주어인 '달리가'의 서술어이고, 안은 문장의 주어인 '수진이는'의 서술어가 '달리가 빠르다.'가 되는 거지. 여기서 하나만 더. '시간이 참 빠르다', '수진이는 달리가 빠르다' 이 두 문장에서 '빠르다'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단어로 보아야 해. 결론적으로 두 문장에서 '빠르다'는 같은 형용사에 같은 서술어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어.

②를 살펴보자. 먼저 '유진이가 토마토를 뒤뜰에서 키운다'에서 '키우다'는 '동식물을 돌보아 기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야. 이때 '키우다'는 '유진이가'라는 주어와 '토마토를'이라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야. 다음으로 '지숙이가 고양이를 정성으로 키운다.'에서 '키우다'도 '동식물을 돌보아 기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야. 또한 이 문장에서 '키우다'도 '지숙이가'라는 주어와 '고양이를'이라는 목적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야. 정리하면 두 문장의 '키우다'는 같은 동사이며 같은 서술어의 자릿수를 가져.

③을 살펴보자. 먼저 '여기에 있던 과자를 먹은 사람이 누구지?'라는 문장에서 '먹은'은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야.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사람이 과자를 먹었다.'가 돼. 이 문장에서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 어미인 '-(으)ㄴ'으로 바꾸고 안은 문장과 동일한 부분인 '사람이', '과자를'을 삭제하고 안긴 거야. 즉, '먹은'은 '사람이'라는 주어와 '과자를'이라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야. 다음으로 '오늘 아침으로 내가 먹은 음식은 사과뿐이다.'에서 '내가 먹은' 또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야.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내가 음식을 먹었다'가 돼. 이때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으)ㄴ'으로 바꾸고 안은 문장과 중복되는 '음식을'을 삭제한 후 안긴 거야. 즉, '먹은'은 '내가'라는 주어와 '음식을'이라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2자리 서술어야. 정리하면 두 문장의 '먹다'는 같은 동사이며 같은 서술어의 자릿수를 가져.

④를 살펴보자. 먼저 '윤수가 나에게 보낸 선물이 벌써 도착했다.'에서 '윤수가 나에게 보낸'은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야. 이를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윤수가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지. 이때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으로 바꾸고 안은 문장과 중복되는 목적어 '선물을'을 삭제한 후 안긴 거야. 즉 '보내다'는 '윤수가'라는 주어, '나에게'라는 부사어, '선물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자리 서술어야. 다음으로, '연지가 집으로 보낸 소포가 어디에선가 분실되었다.'에서 '연지가 집으로 보낸'도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야. 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면 '연지가 집으로 소포를 보냈다.'가 돼. 이때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인 '-(으)ㄴ'으로 바꾸고 안은 문장과 중복되는 목적어 '소포를'을 삭제하고 안긴 거야. 정리하면 '보내다'는 주어 '연지가', 부사어 '집으로', 목적어 '소포를'을 요구하는 3자리 서술어야. 즉 두 문장의 '보내다' 모두 같은 동사이며 같은 3자리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어.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중세의 관형격조사]

형태	환경	예시
ㅅ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터 + 스, 나라 + 스
익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불 + 익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의

[중세의 접속조사]

- 대표적으로 '와/과'가 있다.(ㄹ이나 모음 뒤에서는 '와' / 자음 뒤에서는 '과'를 사용했다.)
- 체언이 나열될 때 접속 조사가 마지막 체언에도 사용되었다.
- 주격 조사나 관형격 조사와 결합하여 실현되기도 했다.

예)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도 흐며(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환경 / 의미	접속조사	용례
ㄹ 제외 자음 뒤	과	아들의 마음과 힘팔 기료문
ㄹ 이나 모음 뒤	와	입시율와 혀와 엄과 니왜(니+와+이) 다 도호며
그 위에 더하여 또 (의미)	하고	부인도 목수미 열덜하고 날웨 기터 겨삿다
나열 (의미)	-이며/며	張개여 李개여 호보로 다 닐은 마리라

[선택지 해설]

15.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㉑을 먼저 보자. ‘마침과 처음을 알지 못하여’라는 말을 중세 국어로 바꿀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마침’, ‘처음’이라는 나열된 체언이 있다는 거야. 위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나열된 체언 중 마지막 체언에도 와/과를 붙인다.’라고 했어. 이에, ‘마침과 처음과를’처럼 마지막 체언인 ‘처음’ 뒤에도 ‘과’를 붙이고 난 다음 격조사 ‘를’이 와야 해. 다음으로 ㉒을 보자. ‘須達이 부터와 중과 마를 듣고’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아야 해. 앞에서 무정 명사나 존칭의 유정 명사에 ‘스’를 썼다고 했어. 그럼 이게 힌트겠지. ‘부터와 중과’에 ‘스’이 쓰인 게 보여. ‘중’은 무정 명사가 아니니 ‘스’이 쓰인 이유는 ‘중’이 존칭 명사이기 때문이겠지. 즉, ‘중’은 높임의 대상이야. 그런데, 아까 위에서 나열된 마지막 체언에도 ‘와/과’를 쓰고 격조사를 붙이면 연결된 두 체언은 문장 안에서 같은 존칭의 자격을 가진다고 했어. ‘부터와 중과’에서 체언 ‘부터’와 ‘중’이 ‘와/과’로 이어졌고 마지막 ‘중’ 뒤에도 ‘와/과’가 쓰였고 그 뒤에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어! 그럼 ‘부터’와 ‘중’은 같은 존칭의 자격을 가지는 거지. 그러므로 해당 문장에서 존칭의 대상은 ‘부터’와 ‘중’이 되는 거야.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21~25번 지문][지명채권의 양도 과정]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유동성이란 자산을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로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현금처럼 거래에 자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거래에 자주 활용될 때, 그 자산의 유통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편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인 양도성을 지닐 수 있다. 지명채권(指名債權), 즉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도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 이때 채권자는 갑으로 정해지므로 이 채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지명채권은 양도성을 가지므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갑은 이 지명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병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거나 갚아야 하는 빚을 갚을 수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이로 인해 양도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 양도가 성립해도 양수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수인을 특정하여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고 하며,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는 양도인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돈을 갚아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신이 양도인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지나 승낙 이후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또 양도인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채무자는 원래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복수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복수의 양수인 사이에서 권리관계의 우열을 ㉠가려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그렇지 않은 양수인보다 우월하다.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복수일 때에는 양도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기준이 된다. 통지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고, 승낙의 경우는 채무자가 승낙하는 시점에 이미 채권 양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어, 이 날짜가 가장 앞선 양수인이 적법한 권리자가 된다. 복수의 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없는 단순 통지나 승낙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지나 승낙의 선후로 적법한 양수인을 정한다. 한편 적법한 양수인이 아닌 양수인은 자신이 양도인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일자가 중요하므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를 갖추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양도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명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양수인과 달리 해당 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유인이 적으므로,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명채권의 유통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가령 ㉠양수인에게도 통지 권한을 주기로 하는 한편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면 지명채권의 유통성을 높일 수 있어 지명채권 양도가 거래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유동성이란 자산을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C)로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현금처럼 거래에 자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거래에 자주 활용될 때, 그 자산의 유통성이 높다(C)고 말한다. 한편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인 양도성(C)을 지닐 수 있다. 지명채권(指名債權), 즉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C)도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의 하나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첫 문단이니 꼼꼼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꽤 많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유통성', '양도성' 그리고 '지명채권', 이 개념들은 반드시 다시 나올 개념들이므로, 잘 잡고 갑니다.
- ② 3번째 줄에 '한편'을 기준으로 나눠봅시다. '유동성'과 '유통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고, '양도성'과 '지명채권'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입니다. '자산'이 가지는 성질이 '유동성', '유통성', '양도성'이라고 할 때, '지명채권'은 일단 '양도성'이라는 성질에 초점을 두고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③ '지명채권'은 채권 중에서도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입니다. 경제 지문 기출 분석도 해봤을 것이고, 한수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경제 지문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미 '채권자'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인데, 이 채권에 '양도성'이 있다는 것은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위에서 말한 '특정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예를 들어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 이때 채권자는 갑으로 정해지므로 이 채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지명채권은 양도성을 가지므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갑은 이 지명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병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거나 갑아야 하는 빚을 갚을 수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이로 인해 양도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사례를 제시해주었으니 일단은 '처리'보다 '이해'에 목적을 두고 읽어봅시다.
- ② 갑자기 등장하는 '병'이라는 인물만 안 놓치도록 주의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병'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양도'하여 '을'이 자신이 아닌 '병'에게 돈을 주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점유·소유 지문'의 '반환청구권 양도' 개념이 떠올랐다면, 좋습니다. 기출 분석을 아주 잘 해온 것입니다.
- ③ '갑-을-병'의 사례는 1문단 마지막 문장의 부연 설명에 가깝고,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아주 짧은 문제-해결 구조가 나타납니다.
[상황] :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
[문제] : 채무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가능 ⇔ [해결]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in 민법)
- ④ '규정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문단의 마지막이었으니, 다음에는 이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습니다. 이때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규정'이었는지, 즉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 양도가 성립해도 양수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수인을 특정하여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고 하며,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는 양도인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돈을 갚아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신이 양도인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지나 승낙 이후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또 양도인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채무자는 원래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양수인], [양도인], [채무자], 이 셋의 개념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문단이 통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문단 앞에서부터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머리로 안 된다면, 손을 쓰세요. 이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생긴 게 비슷해서 헷갈린다면, 앞 문단의 사례와 연결해서 '갑, 을, 병'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앞문단 사례의 '갑, 을, 병' 중에 '양도인'은 누가 될까요? '갑'이지요. 이때 '을'은 '채무자', '병'은 '양수인'이 됩니다.

$$\text{'갑'} = [\text{양도인}] / \text{'을'} = [\text{채무자}] / \text{'병'} = [\text{양수인}]$$
- ③ 이때 채권을 양도받은 '병'이 '을'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즉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한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갑'이 '을'에게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
 - 2) '을'이 '갑' 혹은 '병'에게 채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달
- ④ 위의 두 요건들 중 하나는 갖춰야 하는데, 만약 둘 다 갖추지 못한 경우 쉽게 생각하면 채권 양도는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정리해봅시다.
 - 1) '병'은 '을'에게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고
 - 2) '갑'과 '을'이 채권의 내용을 변경해도 '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 3)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도 '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4) '병'은 그저 원래 가진 채권의 내용대로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⑤ 위의 상황은 요건이 둘 다 충족되지 않았을 때이고, 둘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채권 양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병'은 '을'에게 '갑'에게 빌린 돈을 자신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 2)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주더라도, 여전히 '병'에게도 돈을 갚아야 한다.
 - 3) '갑'과 '을'이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병'은 양도받은 내용 그대로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
- ⑥ 크게 나뉘었을 때 '요건이 충족된 경우'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그 안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도 꽤 많습니다. 정보량이 많은 문단은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내용을 전부 기억하는 것도 힘들지요. 큰 기준으로 문단을 '잘 보이게' 끊어 놓고, 선지 판단 과정에서는 돌아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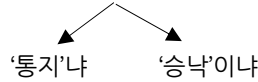
그런데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복수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복수의 양수인 사이에서 권리관계의 우열을 가려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그렇지 않은 양수인보다 우월하다.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복수일 때에는 양도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기준이 된다. 통지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고, 승낙의 경우는 채무자가 승낙하는 시점에 이미 채권 양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어, 이 날짜가 가장 앞선 양수인이 적법한 권리자가 된다. 복수의 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없는 단순 통지나 승낙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지나 승낙의 선후로 적법한 양수인을 정한다. 한편 적법한 양수인이 아닌 양수인은 자신이 양도인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양도인’이 ‘복수의 양수인’에게 지명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양수인’이 복수일 경우 그 중 한 명만 적법한 양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수의 양수인 중 누구를 적법한 양수인으로 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 ② 경우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끊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 호흡에 쭉 읽기에는 정보량이 너무 많고 상황들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보들이 뒤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단을 끊으면서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끊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장이었다면, 언제든지 바로 구분할 수 있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끊어두는 것이 좋겠지요.
- ③ 첫 번째 경우 : 양수인 ‘병’과 ‘정’이 있는데, ‘병’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졌고 ‘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 ⇨ ‘병’이 적법한 양수인이 됩니다.
- ④ 두 번째 경우 : ‘병’과 ‘정’이 모두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짜가 빠른 사람이 적법한 양수인이 되는데,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짜’는 ‘통지’나 ‘승낙’이냐에 따라 다시 선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신 잃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길지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증서 有 → ‘채무자의 인식 날짜’가 빠른 사람이 적법한 양수인]



[통지] :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

[승낙] : 채무자가 승낙하는 시점 = 확정일자

- ⑤ 세 번째 경우 : ‘병’과 ‘정’이 모두 증서가 없는 경우 ⇨ 통지나 승낙을 빨리 한 사람이 적법한 양수인이 됩니다.
- ⑥ ‘병’과 ‘정’ 중 ‘병’이 적법한 양수인이 된 경우, ‘정’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갑’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문단에서 봤던 것처럼, 채권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확정일자가 중요하므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를 갖추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양도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명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양수인과 달리 해당 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유인이 적으므로,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명채권의 유통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가령 양수인에게도 통지 권한을 주기로 하는 한편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면 지명채권의 유통성을 높일 수 있어 지명채권 양도가 거래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확정일자’는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확정일자에 따라 양수인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을 양도하고 나면 자신과 무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 ② 사례를 계속 활용해보시다. ‘갑’은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채권양도가 끝난 시점에서 ‘갑’은 ‘을’에게 받을 돈도, ‘병’에게 갚을 돈도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갑’은 이 거래로부터 관심을 끊게 됩니다. ‘을’이랑 ‘병’, 너네 둘이서 알아서 해라~ㅎㅎ 와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 ③ 문제는 ‘갑’은 ‘을’에게 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것, 즉 자신이 아닌 ‘병’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는 것을 ‘통지’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문단에 나온 채권양도의 요건 중 하나이지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 ④ 그런데 ‘갑’은 관심이 없어진 나머지 ‘을’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해주지 않게 되고, 이는 지명채권의 ‘유통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1문단의 내용이 연결되네요. 1문단에 가서 ‘유통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봐야겠지요.
‘유통성’ = ‘자산’이 거래에 자주 활용되는 것
- 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명채권’의 양도가 발생하고 나서 관심이 없어진 양도자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 해주지 않게 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발생한다. 이 우려 때문에 사람들은 ‘지명채권’을 거래에 자주

활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지명채권'의 유통성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⑥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해결 방법이 두 가지 제시되었습니다.

1) 양수인에게도 통지 권한을 주기

즉 '갑'이 아니라 '병'도 '을'에게 채권의 양도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갑'은 관심이 없지만 '병'은 채권 양도가 끝난 시점부터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을'에게 통지하겠지요. 돈 받아야 하니까요!

2)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두기

여기에 채무자의 양도 사실 '확인'을 아예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이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한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23번 문제에서 물어볼 건데, 그때 가서, 선지 보고 나서,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파악만 해두고 마무리합니다.

*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많이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들도 모두 지치고 힘든 한 해인 듯합니다.

세웠던 계획들이 틀어지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올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번 수정하고 매번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독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수능을 본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합시다.

결국에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아. 마스크 잘 끼고, 건강 조심하세요.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동성이란 자산을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로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현금처럼 거래에 자주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거래에 자주 활용될 때, 그 자산의 유동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편 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인 양도성을 지닐 수 있다. 지명채권(指名債權) 즉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도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다. 이때 채권자는 갑으로 정해지므로 이 채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지명채권은 양도성을 가지므로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 즉 갑은 이 지명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병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거나 갚아야 하는 빚을 갚을 수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이로 인해 양도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 양도가 성립해도 양수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수인을 특정하여(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고 하며, 이 요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는 양도인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무자가(양도인에게 돈을 갚아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는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신이 양도인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지나 승낙 이후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또 양도인과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채무자는 원래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복수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복수의 양수인 사이에서 권리관계의 우열을 ㉠ 가려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그렇지 않은 양수인보다 우월하다.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양수인이 복수일 때에는 양도 사실에 대한(채무자의 인식이 기준이 된다. 통지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고, 승낙의 경우는 채무자가 승낙하는 시점에 이미 채권 양도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가 채무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되어, 이 날짜가 가장 앞선 양수인이 적법한 권리자가 된다. 복수의 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없는 단순 통지나 승낙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지나 승낙의 순후로 적법한 양수인을 정한다. 한편 적법한 양수인이 아닌 양수인은 자신이 양도인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행사할 수 있다. > 21-3
이처럼 확정일자가 중요하므로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를 갖추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양도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명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는 양수인과 달리 해당 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유인이 적으므로,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명채권의 유동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가령 ㉠ 양수인에게도 통지 권한을 주기로 하는 한편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양도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면 지명채권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어 지명채권 양도가 거래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423-5
*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2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유동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유동성이 높을 수 있다. 0
 - ㉡ 지명채권의 양도는 그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없이도 성립한다. 0 → 관여 X = 인식 X
 - ㉢ 현실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대부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다. 0
 - ㉣ 채무자에 대한 양수인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져야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0
 - ㉤ 양도인의 통지가 있는 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나 손해배상 청구는 대항요건(통지, 승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가능. 그러나 선지에서는 '통지가 있는 쪽'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옳지 않다. 통지/승낙 이후에는 양도인 → 채무자 직접 청구 가능
2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독서 후 정리 활동]
지명채권의 양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 양수인이 한 명인 지명채권 양도
 - ㉠ 양도인과 채권자가 채권 양도에 대해 합의.
 - ㉡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에 대해 통지(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일 필요는 없음).
 - ㉢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를 승낙함을 전달(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의사 전달이어야 함).
 - ㉣ 채권 양도 성립.
 -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 이행의 의무가 있음.
- 양수인이 두 명 이상인 지명채권 양도
 - ...

- ㉠ ㉡는 뜻이 불분명하므로 '채권 양도'를 '채권자의 채권 양도'로 수정해야겠군. X → 여전히 불분명함. 채권자 → 양수인, 채권 → 양도인의 재산'으로 수정
- ㉡ ㉠의 합의만으로 채권 양도는 성립하므로 ㉡의 위치를 ㉠ 바로 뒤로 옮겨야겠군. 0 → 지문 확인
- ㉢ ㉠를 그대로 두면 ㉠만으로는 ㉡의 채무 이행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수인'을 '양도인'으로 수정해야겠군. 0
→ 민법에 규정 (재판확인)

- ④ ㉠에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의사 전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 전달이어야 함'을 '의사 전달일 필요는 없음'으로 수정해야겠군. ○ → **확정일자가 중요한 하나, 필수적인 것은 X.**
- ⑤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양수인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므로 ㉠과 ㉡ 중 하나만 이루어져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지문 확인**

2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 ① ㉠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X **▶ 객관에 여남**
- ② ㉠은 채무 이행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X
- ③ ㉡은 양수인의 통지가 허위일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다. ○
- ④ ㉡은 채무자로 하여금 양수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유인하는 요건이다. X → **'신중하게' 하는 것다는 목관**
- ⑤ ㉠은 지명채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은 지명채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X

↳ **지문 확인**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새내 적용

<보 기>

A는 모년(某年) 4월 5일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같은 해 6월 5일에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B는 빚을 갚는 대신 자신의 C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A는 이에 동의하였다. C의 변제기일인 같은 해 6월 15일에 A가 C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C는 A에 대해서는 B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B가 D에게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것을 알고 같은 해 6월 10일자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해 승낙 의사를 전했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단, 통지나 승낙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 **C는 B가 A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통지는 받지 못했고 승낙도 하지 않아서**
- ① A는 C가 아니라 B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겠군. ○
- ② A가 아니라 D가 C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으로 인정되겠군. ○ → **C가 D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승낙 의사를 먼저 받으면**
- ③ B가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어도 C는 A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군. ○ → **C에 대한 대항 요건은 충족되지 못해서 (통지X, 승낙X)**
- ④ B가 자신이 A에게 양도한 사실도 C에게 확정일자를 갖추어 통지했다면 확정일자의 선후로 적법한 양수인이 가려지겠군. X
- ⑤ B가 자신이 D에게 양도한 사실도 C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C도 이 사실에 대한 승낙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면, C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대는 여전히 B이겠군. ○
- ↳ **통지/승낙이 없었으므로 D는 C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항 요건 불충족)**
- ↳ **㉠: 통지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을 채무자의 인식이 아닌 법원 관공. (통지 확정일자) 가 있어서 확정일자의 선후로 가려지는 것은 옳지**

25.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아이는 아직 대소변을 못 가린다. X
- ②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X
- ③ 이번 결연에서 음식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 **→ 우열을 가리는 의미에서 사용**
- ④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사람을 대하기 힘들었다. X
- ⑤ 그녀는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X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혜빙은 특히 세상 부부들의 영욕 거부하기를 마치 초와 월나라가 서로 원수로 여긴 것처럼 하여 ㉠ 수시로 말하기를, “여자는 죄인이라 이미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의 규제를 받아야만** 하니, 남자가 되지 못할진댄 **인륜을 끊는 것이 옳으리라.**”

하며 형제들이 부부의 연을 맺어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웃었다. 다른 형제는 이런 혜빙 소저가 여자답지 않게 활달하다고 조롱했으며, 혜빙의 아버지인 서평후 영공과 그의 아내 또한 그녀의 생각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가운데 영공이 한림학사인 방관주를 매우 사랑하여 ㉡ 지극정성으로 구혼하니, 한림이 매우 괴로워하다가 생각했다. ‘이미 죽을 때까지 남자로 행세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나, 처자를 두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름다운 숙녀를 얻어 평생 동안 지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나 차마 **남을 속여 인륜을 해치기** 어렵고, 또한 어리석고 못난 여자를 만나 내 **본색이 누설될까** 두렵구나.’

(중략)

혼례를 올린 날 밤 한림이 침실에 이르니, ㉢ 소저가 이미 그가 여자인 줄 알고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낮추고 옆으로 살짝 비켜 앉으며 말했다.

“침이 상공께 아될 말씀이 있으니, 혹 당돌할지라도 용서하소서.”

한림이 소저가 이미 자기의 본색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탄식하며 말했다.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느냐? 한번 듣고자 하나이다.” 소저가 옷깃을 여미면서 대답했다.

“소침이 만일 **한림을 알지 못했다면 어찌 당돌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나이까?** 그윽이 헤아려 보니, 한림께서는 해와 달을 속이고 세상을 기망하여 여자이면서도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남자 옷을 차려입었소.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사정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침이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아니하리이다.”

한림은 소저의 이처럼 맑고 분명한 결단에 항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고 참혹해, 옥처럼 고운 얼굴에 구슬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능히 기운을 수습하지 못했다. 한동안 이렇게 구슬피 운 뒤 팔을 들어 사례하며 말했다.

“저의 근본은 소저가 의심한 것과 같소이다. 하늘에 무거운 죄를 지은 탓에 여덟 살에 양친을 모두 여의고 제 한 몸만 외로이 남았는데, 궁벽한 시골 고향에는 일가친척 등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었소. 살아갈 계교가 전혀 없어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

[A] 이미 열 살이 되었는데도 행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냈소. 나이가 어린 탓에 남자 행색을 계속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 그대가 내 본색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감히 다시는 속이지 못하리다. 나는 이미 길을 잘못 들었고, 곡경지심(曲徑之心)*이 있어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존경하는 영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